

건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마치고

우 리현장은 관리감독자는 물론, 본사차원에서 집중관리하는 현장으로 재해사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 사고 현장이지만 재해로 나타나지 않는 아차사고 건수는 이십여건 정도 발생되어 현장정리정돈, 개구부 덮개설치 등 위험작업시는 안전담당자를 비롯하여 현장소장의 관리감독자 입회하에 작업토록 하였으나 현장여건상 월말 등 제반서류 작성 등 사무업무가 집중될 경우 현장안전관리 업무가 단절되는 경우가 부득이 하게 있다.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보다 철저히 시행하고자 하나 전반적인 상태는 현재까지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제일 시급한 것은 작업자들의 안전의식이 결여된 상태를 수시 교육을 통하여 재인식시키고 있지만 공사에 건상 잦은 이직으로 인하여 교육효과는 좋지 못한 실정이다.

전반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어 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입으로만 그치는 경우가 많다.

사고는 복합적인 것으로 저가의 공사금액으로 무리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작업 전 작업방법의 사전검토 등을 통하여 안전작업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번 양성교육과정을 통하여 직접 실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되어 공사현장의 관리 감독자로서 담당업무의 안전교육을 직접 주관하고 여러 업체의 작업인원 관리 등을 동시에 수행하는 나자신으로서는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교육전 작성된 안전관리 제반서류 정리가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빠른 시일내 조속 보완조치 및 현장의 아차사고 방지를 위하여 불안정한 상태, 행동을 사전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겠다.

얼마 남지않은 공사기간내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보다 철저히 시행하여 무사고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본공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주변을 새롭게 정리하여야겠다.

이광근/(주) 서해건설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우 리현장은 1년간 경사 2건만 발생한 모범적인 현장이다. 거의 1,000억원에 달하는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적은 이유를 분석해보면 우선 발주처에서 안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근로자들을 교육하고 있고 본 현장의 현장소장은 안전이 공사에 우선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어 직원들도 철저한 안전의식을 가지고 수시로 안전수첩에 안전문제를 기록하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 미리 예방조치를 한다. 또 매달에 1회씩 안전실적에 따라 관리자 및 근로자

에게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이른바 메리트 시스템이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확고히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관리자들은 매주 1회 이상의 현장점검과 지속적인 안전회의를 통해서 안전을 뿌리내리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나도 건설회사에 근무하면서 부실시공을 추방하고 한건의 제해도 없이 무사히 공사를 마쳤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안전에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안전은 안전 담당자만 하는 것인 줄 알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안전에 대한 책임은 담당기사와 직원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안전은 건설회사 직원이 겸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제도화되지 않으면 책임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안전에 소홀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모든 직원은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안전담당 업무를 고과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위 말하는 “노가다”의 문화를 극복하려면 우선 건설회사부터 바뀌어야 한다. 모든 용어는 한국어로 번역해야 하며,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타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 자격증 제도를 폐지하고 경력위주의 건설기술자를 양성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은 모두 기술자로 바뀌어야 한다. 사실 한국건설업은 부실 그 자체이다. 발주처, 시공자, 하청업체 등 그 관계가 복잡하고 담당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는 게 현실이다. 지금도 서울 교량을 보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만 같다. 그러나 안전진단을 실시한다는 핑계로 보수를 미루고 있다. 이것은 국민성파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비무환”에 너무나 인색한 것 같다. 꼭 무슨 일이 터져야만 단합이 되고 보수를 하고 바쁘게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친다. 이러한 과거의 전철을 되밟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OECD 가입과 더불어 우리 건설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우선 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를 느낀다. 모든 제조업체의 분위기를 쫓아가야 한다. 실제로 휴일, 공휴일에 사고가 많이 생긴다. 그러나 무조건 공기단축이 기술력인 것처럼 착각되고 있는 게 우리의 실정이다. 그리고 외국건설업체가 들어오면 당장 걱정이다. 모든 것을 선진국 수준에 맞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건설업은 분명히 낙오자가 될 것이다. 안전도 마찬가지다. 아직도 안전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안전은 소수만 알아서는 될 수 없는 종합적인 경영이다. 정부, 시공업자, 감리업자, 근로자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한다. 안전은 이제 우리의 당면과제이다. 안전 위에 안전없고 안전 밑에 안전없다는 것이 나의 소견이다. 현재제는 안전은 참모역할만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책임과 권한이 같이 주어져야 한다. 안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천마디의 말보다 무엇보다 1건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정일삼/(주) 한화건설 사원